

적성교육가족 1박 2일 가족캠프 운영

2019년 07월 11일(목) 11:13 [순창신문] 경로복사



© 순창신문

지난 6월 28일(금)부터 6월 29일(토)까지 적성초등학교(교장 박정심)에서는 전교사·학부모·학생들이 참여한 적성교육가족 캠프가 진행되었다.

학교에서 처음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적성 교육 가족들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가족, 아이들과 뜻 깊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실시 된 적성가족캠프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전 세대가 참여하여 1박 2일간 동계면에 있는 숲체험(밭줄놀이), 저녁식사 후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상담 프로그램, 다음날 적성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전통놀이 운동회 등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직접 텐트를 치고 적성교육가족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며 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진솔한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1박을 하며 다른 친구들과 저녁 늦게까지 머물러 노는 즐거운 시간을, 교사와 학부모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적성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함께 진행된 학부모와 학생 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부모가 우리 자녀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기회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캠프에 참가한 적성초 어린이 회장 이승희 학생은 "우리 가족만 있으면 조금 재미없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친구 가족들도 함께해서 엄청 재미있었어요, 내년에도 후배들을 위해서 계속 운영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였으며 학부모회 박연옥 회장님도 "1박 2일 캠프를 통해 아이들의 친구들, 가족들, 선생님과 재미난 추억을 만들었어요."라고 말씀하는 등 아이들이 즐겁고 신나는 모습에 가족 캠프 운영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해주셨다.